

# 제주도 출신의 재일동포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sup>1)</sup> :

1세의 이주와 귀향 장송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인자(도호쿠(東北) 대학)

- I. 이주자의 죽음
- II. 이주하는 「생」
- III. 귀향하는 「死」
- IV. 사후의 고향
- V. 「고내리」에 살며 고내리에 잠들다
- VI. 후기

1) 본 발표 논문은 1993-97년까지 오사카이쿠노쿠 쓰루하시와 동경 아라가와구 미카와시마에서 필드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박사논문「移住者の「故郷」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在日済州道出身者の移住過程と葬送儀礼からみる「安住」の希求-」의 일부를 차용, 박사논문 집필과 그 후의 기간인1998년-2017년까지의 조사로 보완번역한 것이다.

---

 ● 요약문 ●
 

---

이 논문은 토장(土葬)의 문화를 가진 재일 동포1세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고내리 출신자의 죽음과 삶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생계의 터전이 일본이던 사람이 많았던 고내리는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넘쳐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혼란에 박차를 가하듯이 많은 제주도민의 생명을 앗아간 4.3사건 및 한국전쟁이 발발해 마을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다.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 중에는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있는 젊은이들은 빈곤한 마을 생활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있는 일본에 가기 위해 「밀항」이라는 수단에 호소하게 된다. 이런 도일(渡日) 방법은 일본의 패전에 의해 한.일 양국 사이에 갑자기 「국경선」이 그어진 1945년부터 한일조약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20년간 활발하게 발생했다.

연구결과, 고내리 「고향」은 이민1세가 더듬어 온 삶의 궤적의 연상선상에 있다. 현재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내리는 고향을 모르는 재일2세-3세에 있어서 정체성을 대신하는 또 다른 장소로 나타났다. 장례의식은 이민1세와 이민2세-3세들간의 「고내리」의 접점을 발견하는 작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계와 유대가 생기는 일도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자(死者)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하나 남기고 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주제어:** 고내리, 재일동포, 제주도, 이민세대, 장례의식, 정체성, 이민정착

---

## I. 이주자의 죽음

본 논문에서는 이주 1세의 사후(死後)귀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주자란 이문화(異文化)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인생 자체가 인간의 문화.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날카롭게 비추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어나서 자란 환경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 몸을 두면 언어와 생활양식이 다른 것은 알고 있

어도, 자손들에게는 그 「이문화」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부모·자식 간에 상상 이상의 격차가 생겨 버리는 것에 당황하는 이주 1세가 많다. 사람은 종종 유언과 유서라는 형태로 자신의 사후(死後) 일에 관한 소원을 자손에게 부탁하지만, 이국(異國)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주 1세의 경우 이주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손들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장(土葬)의 문화를 가진 재일 동포<sup>2)</sup> 1세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출신자의 죽음과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화장(火葬)을 거부한 제주도 출신 여성이 일본에서 죽음을 맞이해, 시신인 채로 제주도까지 옮겨져 매장된 「생장(生葬)」 사례이다. 생장은 한국에서 보통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도 제주도 사람들로부터 배운 용어이다.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어떤 어원(語源)을 가지고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화장(火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 조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재일 제주도 출신자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장」하지 않고 시신을 일본에서 옮겨와 토장(土葬)하는 것을 가리켜 「생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재일동포의 생활문화의 안에서 생장은 반드시 일반적인 풍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특수한 사례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거기에야말로 재일동포의 생(生)과 사(死)를 이해하는 키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제주도 출신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 정착해, 이주지에 어떤 삶의 환경을 만들어갔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살펴본다. 이어서 이주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후 환경을 생장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거기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행하여지며 그 배후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실제로 생장에 동행했던 사적 견문을 바탕으로 재현해보고 싶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주자로서 떠나는 「생」과 「사」를 둘러싼 몇 개의 문제에 대해서 생장과 관련 있는 범위에서 생각해보고 싶다. 이것이 결코 일부의 재일동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도시사회에 사는, 고향을

2)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그들을 가리키는 명칭에는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코리안」, 「조선인」, 「한국인」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재일동포」라는 명칭을 골라, 현재 남쪽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의 조선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및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3) 한국 본토에서는 사자(死者)에 입히는 옷, 화장, 관을 주지 않고, 죽은 채로의 상태에서 토장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하는 지방도 있다.

상실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논문은 20년 전에 행해진 생각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생각을 마친 2세 3세의 20여년간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이주자의 이주와 귀환, 그리고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II. 이주하는 「생」

### 1. 고내리에서부터 아라카와(荒川 三河島)로

고내리는 한국 제주도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인구 330명 정도(1997년 조사)의 작은 어촌이다. 화산이 해안 근처에서 분화한 토지이기 때문에 경작지가 모자라고 마을사람들의 대부분은 반농반어(半農半漁)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는 애월읍에 속해 있는 고내리는 외지사람의 개발로 인해 반정도의 인구가 고내리의 출신자가 살고 있다. 또한 반농반어의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의 대부분은 관광객을 상대로 팬션과 카페등을 경영하고 있다.

마을 자체의 규모는 마을사람들이 일본을 왕복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1920년대에는 190세대였고 현재는 250세대 정도다(97년). 그것에 비해 일본에 거주하는 고내리 출신자는 재일본고내리친목회<sup>4)</sup>의 1990년도 명부에 따르면, 기재돼 있는 것만 해도 300세대가 넘는다. 이주가 시작된 1920년대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일본과 고내리 간에 세대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친목회 기록에 따르면, 1917년에 고내리 출신의 한 청년이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당시 아라카와에 있던 방적공장에 일자리를 얻었던 청년은 잇달아 고내리의 지인들을 불러들여, 아라카와에서의 고내리 사람들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불러들여 1930년경에는 200여 명이 일본에 건너와 방적공장, 고무공장, 제유(

4) 이주한 지역의 지연을 기초로 해서 친목단체가 조직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제주도 출신자에 의한 재일본친목회는 한국의 다른 지역 출신자들의 친목회와는 달리 마을이라는 매우 작은 지역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출신고향별로 친목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이주자수의 많음과 마을 내 혼인 풍습에 의한 마을사람끼리의 관계의 농밀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製油)공장 등의 공원(工具) 이외에 토목하청, 하숙, 미싱가공, 가방제조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돈벌이하러 건너오는 사람은 14세에서 20세 전후의 젊은 남녀였다. 그 후 서서히 일의 내용이 가방제조업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출신자는 「가방의 ○○리」 「구두의 ○○리」 「물장사의 ○○리」라고 불려질 정도로 마을 별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내리는 「구두의 고내리」였다. 아라카와의 고내리 출신자들은 같은 직업에 종사하며 또한 같은 장소(三河島·미카와시마)에서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일본으로의 이주를 추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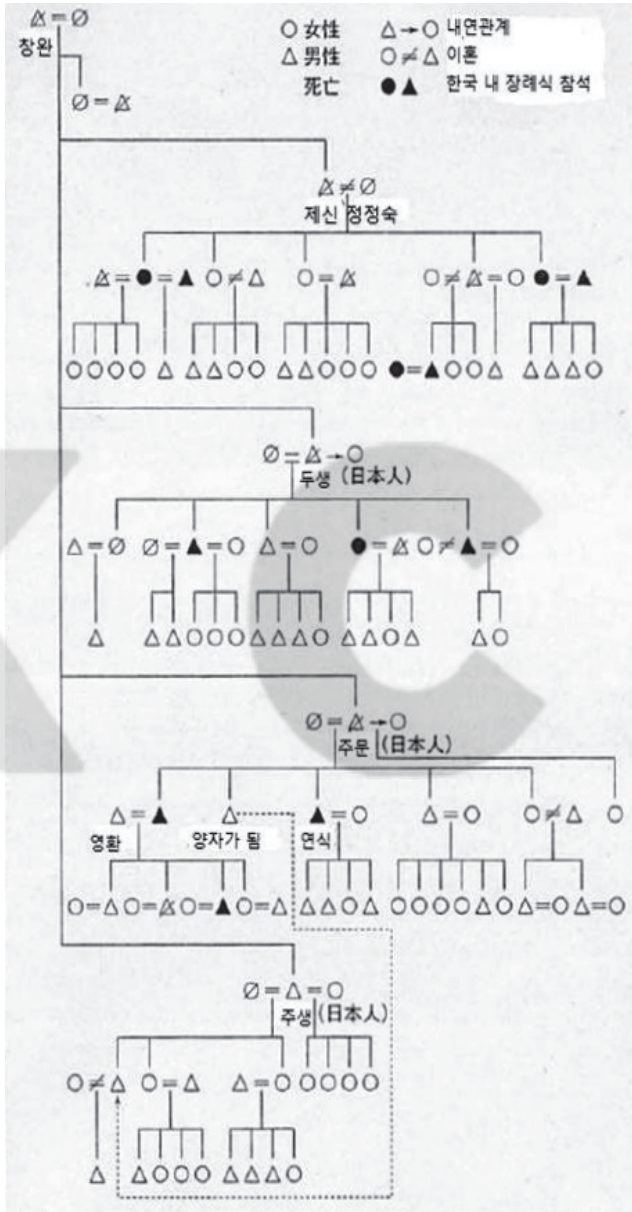
실제로 고내리에서 1910년부터 1920년경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의 돈벌이 경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렇게 돈벌이로 시작된 이주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이하에서는 어느 한 종족<sup>5)</sup>의 일본이주의 구체적 과정을 보기로 하자.

## 2. 홍씨집안(洪家)의 이주 궤적

고내리에는 특히 「홍」씨 가문이 많은데, 그들은 두 개 파로 나뉜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홍씨집안(洪家)<sup>6)</sup>은 족보<sup>7)</sup>에 따르면 현재 제37대에 이르고 있다. 이 파의 홍씨집안이 고내리에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왕조 정조시대(1776-1800년)의 인물인 제28대의 광화(光化·이하 인명은 모두 가명)로부터라고 한다<sup>8)</sup>.

- 
- 5) 동성동본의 일족을 나타내는 말. 보통은 하나의 종족 안에 복수의 파(派)가 포함되고, 각각 특정 인물을 그 파의 시조로 삼고 있다.
  - 6) 한국은 부부별성(別姓)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또 「○家」라는 호칭도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일동포 사이에서는 일본의 가(家)제도와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家」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어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홍씨집안(洪家)」라고 표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부장의 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중에는 타성(他姓)의 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7) 어떤 가문·일족의 대대(代代)의 가계를 부계혈연관계에 따라 기록한 책. 남자만 이름이 기재된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종족(宗族) 중의 파 단위로 족보를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읽기 어려운 것이다.
  - 8) 원래 고내리에서 조금 산등성이에 있는 납읍(納邑)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광화(光化)는 고내리 여성과 결혼해 그대로 고내리의 사람이 되었다. 홍씨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의 여성과 결혼한 것이 고내리에 정착하는 계기가 된 사례는 많다.





〈그림 2〉 정정숙씨 생장을 둘러싼 홍씨 집안의 가계도

그림1과 그림2는 광화 이후 남자의 계보를, 족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계도이다. 장남 계통은 두 아들(제30대)로부터 현재 제37대 자손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 현재 생존한 최고세대의 인물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33대 주생(周生)이다. 차남의 계통은 남자가 태어나지 않아 제30대로 계보가 끊어지고 말았다. 삼남은 장남과 배다른 형제로 부모자식 정도로 나이 차가 많아, 삼남의 자손은 동세대의 안에서는 언제나 젊고 그 세대수도 장남 계통보다 짧다. 가계도 상에 나타난 광화의 남자자손은 8세대 117명에 이른다. 그중 살아 있는 사람은 73명이며 그 80%에 해당하는 59명이 일본에서 살고 있다. 탐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광화와 관계있는 여자 자손은 사망자도 포함해 모두 189명이며, 현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108명이었다. 이처럼 한 계보에 국한해서 보아도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내리에서는 결코 이 일족만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홍씨집안의 일본이주의 역사는 친목회 기록에 따르면 1920년에 제32대의 한 사람(1903년생)이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왔던 것에서 시작한다. 그 후 20년대를 통해서 제32대와 제33대에 속하는 세대가 속속 일본에 건너오게 된다. 홍주생(洪周生)씨를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 따르면, 광화의 장남 계통에서는 제33대의 10명 전원이, 삼남 계통에서는 제32대 8명중 6명이 2차대전 전부터 일본과 제주도를 왕래하면서 돈벌이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연령으로 말하면 1910년대부터 20년대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제주도와 일본을 왕래하는 돈벌이를 생활을 거듭하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돈벌이를 반복하는 사이에 결혼 연령에 달했던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곳에서 결혼하거나, 그러한 사이에 자녀들이 생겨 일본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장남 계통의 제34대는 22명중 20명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이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홍씨집안의 일본이주의 과정은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조선)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휘둘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쟁과 패전은 홍씨집안뿐만 아니라 많은 재일동포의 생활에 변화를 초래했다. 전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우선 가족 일부가 대피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 혼란을 피해, 막연히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홍씨집안도 전쟁 후에는 대부분의 부인과 아이가 고내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남편들은 일



본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자리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은 고향에 돌아갔던 사람이라도 생활고로 인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생계의 터전이 일본이던 사람이 많았던 고내리는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넘쳐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한 혼란에 박차를 가하듯이 많은 제주도민의 생명을 앗아간 4.3사건 및 한국전쟁이 발발해 마을의 생활은 힘들어질 뿐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중에는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있는 제34대의 젊은이들은 빈곤한 마을 생활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있는 일본에 가기 위해 「밀항」이라는 수단에 호소하게 된다. 이런 도일(渡日) 방법은 일본의 패전에 의해 한·일 양국 사이에 갑자기 「국경선」이 그어진 1945년부터 한일조약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20년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밀항」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는 실패해 강제송환되거나 몇 번이나 도전해 겨우 겨우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20년간의 이동의 부자유는 가족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2는 홍씨집안의 일부에 관한 상세한 가계도이다. 이를 보면 창완(昌完)의 아들 4명 중 고향에 돌아가 있었던 기간에(1947년) 병사한 장남 제신(濟信)을 제외한 3명은 일본인 여성과 내연관계 혹은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이 (부부가) 따로따로 생활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가를 말하고 있다. 처자가 제주도에 있는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를 의지해 제주도에서부터 밀항해 온 자녀들의 방문에 의해 처음으로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한편 아버지와 남편이 있는 일본으로 가면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일본으로 왔으나, 아버지와 남편이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자도 많았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은 같은 마을 출신의 친척들이었다<sup>9)</sup>.

9) 일본의 전쟁과 패전에 의한 혼란은 이처럼 많은 이주가족을 찢어놓았다. 밀항이라는 비합법 수단에 의해 가족의 재회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게 됐지만, 나이가 가까운 형제라도 10년 이상 못 만나거나, 심하게는 아버지의 얼굴을 일본에 와서 겨우 알게 된 사람까지 있었다. 이주의 역사가 길어진 것도 있어 친척끼리면서도 혹은 같은 마을사람끼리이면서도 아라카와(荒河)에 와서 비로소 얼굴을 알게 된 것도 많았다. 홍씨 집안의 경우도 처음으로 혹은 전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온 시기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가족과 가까운 친척끼리 오랜만에 재회하거나 고향에서는 소원했던 같은 마을 출신자와 일본에서 친교를 깊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1965년 한일국교가 체결될 때까지는 일본에 거주하는 것과 한국에 거주하는 것과의 경계선은 항상 유동적이었다. 고내리에 살고 있어도 언제 밀항에 성공해 일본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고, 일본에 있어도 언제 고향으로 강제송환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2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제주도에서 일본으로의 자유롭지 못한 이동(밀항)은 한일조약에 의해 마침표가 찍혔다. 동시에 이러한 국교회복에 의해 제주도의 고내리 사람들과 재일 고내리출신자와의 구분은 명확하게 고정화되었다<sup>10)</sup>.

### 3. 아라카와(荒川)의 「고내리」

도쿄도(東京都) 아라카와구(荒川區)의 조반선(常磐線) 미카와지마(三河島)역, 야마노테선(山手線) 닛포리(日暮里)역, 니시닛포리(西日暮里)역 주변일대는 일본에서도 유수의 재일 한국인 밀집지역의 하나이며,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많은 제주도 출신자가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sup>11)</sup>. 그중에서도 고내리 출신자는 제주도의 다른 마을 출신자보다 눈에 띄게 많다. 내가 실제로 본 고내리 친목회의 가장 오래된 명부에 따르면, 1965년에는 전 회원 중 아라카와구 거주가 78%였으며, 1996년에도 50%의 집주율(集住率)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라카와구의 미카와지마 부근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방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동시에 그 사람들은 친목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임의 실질적 담당자층이며, 세대적으로는 이주1세 혹은 1세와 동등한 경험을 해 온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아라카와 지역에는 고내리 이외 마을의 친목회도 몇 개 있지만 이주1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역할이 줄어들어 거의 기능하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고내리 친목회는 다른 마을의 친목회에 비해 아직 결속력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접촉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그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중

10) 1970년경부터는 한국에 있는 친척을 일본에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져 취로(就勞)의 자리가 적었던 고내리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3개월에서부터 6개월의 단기체류형 돈벌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의 친족 재회는 양측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친족관계에 고용주와 피고용자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을 생기게 했다.

11)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는 1950년 5월부터 아라카와에서 제주도 출신자의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동년 6월)에 의해 4개월 여로 조사는 중단되었지만, 아라카와 주변으로의 제주도 출신자 밀집거주 경향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즈미(泉). 1966: 235-275.

층적(重層的)이며 밀접한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고내리 출신자는 마을의 친목회뿐만 아니라 친척모임,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 띠(干支) 모임, 동갑 모임 등 여러 모임에 중복해 속해 있었다. 회원 한 명 한 명이 고내리와 관계가 있는 어떠한 모임에 중복해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친목회 회원에 관한 정보는 항상 전 회원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중층적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사교는 매우 긴밀하다. 예를 들면, 아라카와에 살고 있는 친목회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인척 형제·자매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제사와 행사에 참가하는 관계가 된다. 나아가 사업상에 있어서도 거래관계가 있다든지,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서 임원을 함께 맡고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주말에 고내리 출신자가 경영하는 고깃집에 가면 대체로 뭔가 모임이 있어, 회식을 하고 있는 고내리 출신자 그룹을 만날 수 있다. 고내리 출신자는 말하자면 시골마을 관계 안에서 아라카와에서의 도시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친목회는 원래 고향의 고내리를 기반으로 한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도쿄의 아라카와에서 그 관계가 처음 맺어졌거나, 보다 심화됐었다는 점이다. 고향의 고내리에서는 거의 왕래가 없었던 사람들, 혹은 일본에서 자라 고내리의 기억이 거의 없는 사람들까지도 아라카와에서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만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이주자의 힘든 생활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서의 이주자의 지혜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농밀한 인간관계는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사회와의 접촉과 알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밀향」으로 건너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시골마을적인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밖에 접할 수 없었다. 당연히 사는 장소(아라카와)도, 교류하는 사람(고내리 출신의 친척, 친구)도, 직업(가방제조업)도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장소에 살며 같은 일을 한다는 생활 속에서, 단지 같은 마을 출신이라는 의식 이상의 중층적(重層的)이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갔다. 이리하여 고내리 출신의 이주1세대들은 아라카와에 「제2의 고내리」라고도 할 만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sup>12)</sup>.

12) 「제2의 고내리」는 이주1세대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세계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주2세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일본과의 연결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들의 다수는 일본 학교에 다니며, 그로 인해 동년배의 일본인과 친교를 맺고 있고 언어 면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 일본어가 모어(母語)가 되고 있다. 이들 2세대들은 대부분 친목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 Ⅲ. 귀향하는 「死」

#### 1. 생장을 향하여

재일 제주도 출신자들이 생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일본에 돈벌이하러 건너오게 된 시기와 거의 겹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1934년(昭和9년)에는 일본인 지리학자인 마사다 가즈지(栉田一二)가 제주도로 건너가는 배 안에 시신을 운반하는 관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sup>13)</sup>. 그것에 따르면, 당시 돈벌이하러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뱃삿이 매우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할 때에는 매번 관이 있었다고 한다. 내가 고령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도 마사다의 이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만 당시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오사카(大阪)에서 출발하고 도착했기 때문에 도쿄 거주 재일동포의 경우 오사카까지 시신을 육지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생장은 오사카보다 적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은 생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와 실제로 돌봐줄 친척과 자손이 일본과 제주도 양쪽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시신인 채로 한국까지 운반한다는 장례방법은 재일동포 사이에서도 꽤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하지만 생장은 제주도 출신자를 비롯한 재일동포의 「사는 방식과 죽는 방식」을 단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이하, 홍씨집안에서 행하여졌던 생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홍씨집안 안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정정숙(鄭貞叔)씨는 1997년 4월 90세로 사망했다(그림2 참조). 남편과는 50년 전에 사별했으며, 가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외아들도 10년쯤 전에 사망했다. 외아들을 잃은 다음부터 정정숙씨가 의지해 왔던 것은 아라카와 근처에서 살고 있던 네 딸들과 홍씨집안의 여섯 조카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사

13) 마사다(栉田). 1939: 27-41.

14) 고내리 친목회의 과거의 회원 명부 10권에 기록되어 있는 도쿄 거주자는 766명이다. 그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은 129명이며, 무덤이 한국에 있는 사람은 26명이다. 그 중 생장으로 한국에 옮겨져 매장된 사례가 5건, 죽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 사망해 그 땅에 매장된 사례가 7건이며, 14명은 화장한 유골을 한국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회원 명부는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성의 상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997년에 여성 2명이 생장으로 제주도에 매장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에 뼈를 묻거나 토장(土葬)하는 경우는 전체 비율로서는 극히 소수이다.

별한 남편의 두 번째 남동생의 자식인 연식(延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또한 고향 고내리에는 연식씨의 형 영환(英煥)씨가 살고 있어 고향 일은 모두 영환씨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자식을 잃은 정정숙씨에게 있어 조카들은 이른바 아들 대신의 존재였던 것이다. 정정숙씨 본인은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친척은 원래 고내리 출신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막 온 마을사람들의 일 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여러모로 고향사람을 돌봐줬다고 전해진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친우와 친족들과의 교류를 즐기며, 고내리 출신자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던 정정숙씨는 아라카와에 있는 한 일본을 일본이라고 느끼는 일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정정숙씨는 반년 간의 입원생활 끝에 사망했다. 병원이 아라카와의 미카와지마역 근처였던 것도 있어 친척들은 물론 지인들도 자주 병문안 왔다. 입원하기 전부터 정정숙씨가 걱정이 돼 친척들에게 여러 번 부탁했던 것은 화장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 남편의 옆에 묻히고 싶다는 것으로, 즉 「생장」이었다. 남에게 부탁하는 것뿐 아니라 고향에 묻힐 수 있도록 스스로도 준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한국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반드시 고내리 소재의 사찰을 방문하여, 사망한 아들의 공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후 공양까지 부탁했다. 입원하기 2개월 전, 고향에 있는 묘소의 벌초<sup>16)</sup>에 손자 창식(昌植)씨와 함께 참가했을 때도 창식씨와 동네 절에 가서 사후의 여러 가지 의식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것도 전부 마쳤다. 남은 「생」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은 그녀는 오히려 사후의 환경 조성에 열심이었을 것이다.

정정숙씨가 사망했을 때, 생장을 약속한 유족들은 일본에서의 고별식은 생략하기

15) 나는 정정숙 씨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충분히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9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져 있다는 것과 그녀의 가족과 친척이 모두 각각 곤란한 시대를 넘겨왔고, 그녀의 일생을 일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때문이었다. 정정숙씨는 1945년 한국으로 귀국한 후 부산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기회를 몇 년이나 기다린 끝에 도일(渡日)에 성공했다. 영주권을 얻고 있는 자녀들의 보중에 의해 일본에서 정식 형태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1974년의 일이다. 이미 환갑이 지난 나이였다. 미카와지마(三河島)에서 그녀와 친했다는 늙은 여자들에게 물어봐도, 정정숙씨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던 동안의 사정을 알 수 없었다.

16) 제주도에서는 음력 8월 1일에 벌초를 한다. 이를 위해 회사와 학교가 쉬 정도로 귀중한 행사이다. 또한 많은 재일동포들도 이 날에 일부러 제주도로 돌아와 고향의 친척들과 함께 벌초에 참가한다.

로 했다. 미카와지마에 장소를 빌려 친척만의 임시밤샘과 밤샘을 하며 장례식 그 자체는 한국에 돌아가서 하기로 했다. 상주는 손자 창식씨가 맡았고 생장을 위한 수속은 모두 연식씨가 했다. 또한 경제적인 면은 정정숙씨의 딸들이 부담했다.

## 2. 귀향하는 「죽음」과 고향에서의 「장례」

사망 후 3일째에 유족들은 생장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 제주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신방(무당·민속종교적 직능자)에게 상의해 매장까지의 일정을 정하는 택일을 한다. 정정숙씨의 장례는 제주도 출신의 신방의 택일을 받아 8일째에 매장하는 것으로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3일장이 통례로 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조금 길어, 부모상의 경우에는 5일장이므로 정 정숙 씨의 8일장은 몹시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 창식씨 가족, 딸 내외와 조카 3명이 일을 쉬면서 한국에서의 장례와 매장에 참가했다. 현대의 일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좀처럼 따라할 수 없는, 형식적인 면에서 철저하고 고풍스러운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객사)을 두려워했다. 일본에서 매장을 위해 돌아오는 시신은 고내리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객사이다. 그 때문에 시신을 집 안에 들일 수 없고, 마을에서 떨어진 공터에 텐트를 치고 시신을 안치하는 제단이 준비된다.

제주도에서는 죽은 사람을 근처의 밭 등에 가매장하는 토롱이라는 풍습이 있다. 보통 일본에서 옮겨진 시신은 매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토롱을 한다. 일본에서 장례를 치르러 간 유족들에게는 상당히 위화감이 있는 듯해 옥신각신하는 원인도 되지만, 객사한 시신을 집안에 안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내리에서는 그해 정월부터 마을 사람이 8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마을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정월의 마을축제도 못했다.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영환씨는 토롱을 제안했지만 정정숙씨의 딸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토롱 대신에 마을에서 떨어진 공터에 텐트를 치고 제단을 만든 것이다. 제단 앞에서 도착한 날부터 매장일까지 3박4일을 보내고 고인에 대한 의례가 열렸다. 하루 세 번 식사를 올리고 끊임없이 향을 피우고, 나아가 유족은 밤에도 쉬지 않고 텐트 안에서 시신을 지켜봐야 했다. 4월 말이라고는 해도 밤은 꽤 추웠다. 도쿄에서 온 유족들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마

을에 살고 있는 홍씨 집안의 젊은 친척 3세대와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력지력 맡을 수 있었다. 매장하는 날에는 매장지를 파거나 운구차로 운반하거나 하는 작업은 장의업자에 맡겼지만 친척들과 마을 청년회원들을 합쳐서 약 50명이 매장지까지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보통 장의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마을 사람끼리 서로 도와 장례식을 모두 치른다. 여기서 고내리에서 행하여졌던 정정숙씨의 장례식과, 마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비교해보자. 정정숙씨가 죽은 같은 해 1월, 내가 고내리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홍씨 집안의 부인(그림1의 두식(斗植)씨 처)이 갑자기 사망해 장례식이 열렸다. 5일장으로 매일 마을 사람들과 조문객이 모여들어 이웃집까지 빌리지 않으면 손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홍씨 집안의 몇 안 되는 친척인 영환(英煥)씨 가족은 5일간 대부분의 시간을 두식씨 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 영환의 가족이 집에 돌아가는 것은 잠 잘 때뿐이며 그 이외의 시간은 식사까지 모두 두식씨 집에서 마쳤다. 밤샘부터 매장까지 친척도 마을사람도 함께 식사를 하고, 밤에도 유족과 함께 보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아침까지 집밖에서 카드놀이 등을 하면서 대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힘을 빌려주었다. 매장일까지 24시간 마을이 일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매회의 식사(철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야식도 포함해 하루 4회) 준비만으로도 큰 일이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야식만 해도 매번 50인분은 만들고 있었다. 더욱이 점심 이후는 저녁까지 조문하러 찾아온 사람들 모두에게 식사를 드리는 것이다<sup>17)</sup>. 이 장례식의 조문객은 약 400명이 넘으며 그 접대를 위해 사용한 돼지만 8마리에 달했다.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 고인이 되어 돌아온 정정숙씨와 그 유족들은 확실히 공간적으로는 고향 마을 안에서 장례식을 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마을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달랐다. 그것은 정정숙씨도 그 유족들도 고향 고내리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쿄 아라카와의 고내리를 살았기 때문이다. 현재 고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해서 귀향한 장례식이 아니라 사후(死後)의 장소와 사자(死者)끼리의 관계를 추구해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유족도 마을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조문객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으며, 될 수 있

17) 그 때문인지 마을의 여성들은 며느리들의 모임인 「며느리회」를 만들어 월 1회 친목의 장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결혼, 장례식, 제사 등 행사가 있을 때에는 상부상조를 한다.

는 대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 하였다. 매장을 할 때 도와준 「며느리회」와 마을의 「청년회」에는 사례로서 모임에 기부금을 건네주었다. 마을의 행사는 언제나 상부상조로 하고 있지만 이번 일본에서 온 유족들은 그러한 호혜적 관계 테두리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에 의해서밖에 노고에 보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에서 일부터 시신을 옮겨와 행하는 생장이라는 장례는 여러 면에서 손이 많이 가서 호화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고향에 도착하고 나서의 장례식 그 자체는 마을사람과의 일,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과의 일 등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북한 것이었다. 받아들인 마을 측에서도 그러했을 것이다. 고인과 가까운 친척은 조카 영환씨 정도로, 그 아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먼 친척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된다. 더욱이 고인을 따라다니는 중요한 유족이 평소 왕래가 없는 딸이었던 것도 상황을 보다 한층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유족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몹시 지내기가 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4일간이었다.

생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부담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주2세대들 중에는 정정숙 씨처럼 부모가 생장을 부탁해도 듣지 않고 일본에서 화장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 대단한 생장——귀향하는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또한 어떠한 환경 하에서, 어떠한 원망(願望)에 의해서 생장은 실행되는 것일까.

## IV. 사후의 고향

### 1. 토장(土葬)과 계속 제사 지내는 무덤

정정숙씨가 생장에 집착했던 이유로서 우선 화장에 대한 저항감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사후(死後)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시신을 주로 화장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주로 토장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미 국토의 1%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화장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에게 화장의 문화를 침투시키는 것은 어려운 듯하다<sup>18)</sup>.

재일 이주 1세대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자손이 앞으로 일본에 정착해 갈 것이 자명해졌으니 화장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화장되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토장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대체로 3종류가 있다. 일본 안에서 토장이 허용된 곳에 묘를 건립하는 것,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고향에서 죽는 것, 그리고 생장이다. 화장을 거부하고 죽기 직전에 고향에 돌아가는 사례는 적다고는 해도 드문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한 예는 특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많다. 재일 1세의 화장에 대한 저항은 토장 문화와 화장 문화와는 다른 사후 세계관에 기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화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뜨거운 불 속에서 태워지는 것이 무섭다고 한다. 한 번 죽은 육체가 불에 태워지는 것이 다시 살해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도 말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한국사회에서의 화장의 상황도 화장 거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화장은 태운 유골을 깨뜨려 산과 바다, 강 등에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면 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화장은 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자손들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병사한 사람, 모르는 곳에서 객사한 사람 등을 연상시킨다. 화장은 박복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장례방법이라고 생각하는 1세가 적지 않다. 그러나 2세·3세대들은 토장에 관한 이미지조차 묘를 정도로 화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는 깊이 언급하지 않지만, 시신에 관한 의식의 차이는 또 하나 별도의 흥미 있는 테마를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장을 부탁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생각은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무덤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일본의 경우 묘지 계약은 대체로 30년이 기한이 되어 있다. 기한이 안 되어도 자손들이 관리를 태만히 하면 바로 무연고 고인이 된다는 것을 들어서, 일본에서는 오래 무덤을 관리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족보라고 하는 가계도에 고인의 묘의 위치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묘는 언제까지나 남는 것이다. 실제로 설이나 오본(추석)의 성묘 대상은 10대(代) 전의 선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더욱이 매년 한 번은 종종 전세의 선조의 묘

18)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화장에 대해서 응답자의 36.8%가 절대 반대, 38.4%가 화장제도에 상관없다고 대답하고, 22.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토장보다 화장이 좋다고 답한 사람은 약 2.4%였다.

제(墓祭)를 지내는 등 한국인에게 있어서 무덤은 반영구적인 것이다. 그것은 제일 1세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생각은 때로 친족공동묘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 2. 친족공동묘지

제주도에서는 주민의 대다수가 일본으로 건너가 있기 때문에 선조의 무덤 관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 재일동포의 친족회 회의록에는 고향의 선조 무덤 정비를 위해 1950년에 모금해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한일 국교가 없던 시대의 일이다. 또한 1965년 이후, 즉 한일왕래가 자유롭게 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해 선조의 무덤 정비를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고인의 무덤을 건립하는 데 풍수가 중시되어 왔다. 그 때문에 고인의 매장지를 찾을 때 지관(地官)이 추천하는 곳이면 다른 선조의 무덤과 관계없이 결정했다. 그 결과, 각자의 무덤은 성묘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정도로 흩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에 남은 사람들에게 있어, 특히 일본에 이주한 사람들의 선조의 못까지 관리하고 있는 친척에게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다행히 친척이 남아있는 집은 그래도 아직 괜찮았지만 먼 친척밖에 없는 경우에는 무덤이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는 재일동포들도 많이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큰 묘지를 사서 선조들의 묘를 그곳에 모으는 것이었다. 토지를 살 때의 경제적 부담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맡았다. 그 때의 조건은 고향에 있는 친척들은 재일동포의 선조의 무덤도 관리하고, 그 대신 다소 먼 친척이라도 묘지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었다. 후자의 조건에 관해서는 재일동포 쪽에서도 자진해서 의견을 냈다. 자신들의 선조만을 모아두어서는 결국엔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게 되리라는 두려움이 있다. 현재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친족공동묘지에 무덤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계속 그 자손이 관리해 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고내리의 경우, 성(姓)마다 있는 친족회 중에서 85%<sup>19)</sup>가 독자적인 친족공동묘지를 소유하고 있다.

19) 이것은 다른 마을 출신자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재일 제주도 출신자 전체로 보면 친족공동묘지를 고향에 만든 사람들은 아직 소수이다. 고내리 출신자의 경우, 도쿄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는 정보가 유출되기 쉽고, 그것이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도 있어 높은 소유율을 보이게 됐다고 생각된다.

흥씨 집안에서도 친족공동묘지를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조성하고 있다. 일본에서 무덤을 만들면 3대도 못가 무덤이 없어지거나 무연고 고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친족과 함께 친족공동묘지를 만들어 관리를 받자고 항상 주장해왔던 연식(延植)씨가 솔선해서 움직였다. 도쿄 거주 친척들에게 호소해서 친족공동묘지의 자금을 모았다. 3천 평 규모의 장소를 찾아내 손질을 한 것은 고내리에 살고 있는 형 영환(英煥)씨였다. 일본에서 사망하면서 일본에 무덤을 만들지 않고 이 친족공동묘지에 무덤을 건립한 흥씨 집안 사람은 현시점에서 6명이 있다. 관리용의 자금도 모아서 그 이자로 매년 별초와 묘제(墓祭)를 하고 있다. 무덤의 위치는 지면에 가계도를 쓴 것처럼 세대별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아직 건재한 사람을 위한 공간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조뿐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자손들의 위치까지 상상할 수 있다. 이 공동묘지는 그야말로 영속적인 시간을 가시 화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자신들의 선조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선조——섬에서는 처음 섬에 들어온 입도조(入島祖), 본토에서는 처음 마을에 들어온 입향조(入鄕祖)——들을 제사 지내고, 족보와 무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선조에 연결되는 자손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재일 1세들은 이러한 입도조 무덤의 정비에도 굉장히 열심이다. 그것은 무덤을 반영구적인 것으로 보는 그들의 의식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생장은 그러한 의식을 배경으로 해 고향의 영원한 무덤에 잠들고 싶다는 1세의 욕망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고내리」에 살며 고내리에 잠들다

### 1. 귀향하는 「죽음」과 2세들

재일 1세가 고향에 매장되는 것을 희망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자손이다. 확실히 그들의 자손들은 고향에는 없다. 앞으로도 자손이 한국에 돌아가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손들에 의한 제사를 기대하는 입

장에서 보면 일본에 묻힌다는 것도 타당한 선택이다. 부모가 생장을 요구해도 빈번히 성묘를 할 수 없는 것이 쓸쓸하게 생각되어 실행하지 않았다는 자손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주1세와 2세·3세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거리감은 귀향하는 「죽음」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생활에 쫓기고 있던 1세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한국어 쪽이 자유롭고 한국의 습관에 익숙해서, 평소의 교류도 고향사람이 대부분이고 특히 아라카와의 고내리 사람들은 도쿄에 있으면서도 고내리에 살고 있다는 등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자녀 쪽에서도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시기가 길어지면 두 세대 사이에 갭이 있는 것에 그리 민감해지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아라카와의 민단은 지금도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민단 주최의 성인식에서도 한국어로 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의식의 주인공인 신(新)성인 2세, 3세들은 말의 의미도 모르는 채 견디고 있었다. 이러한 장면은 평소 제사, 결혼식, 장례식 등 친척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즉, 2세, 3세 등은 1세가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들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활의 장면 장면에서 어릴 때부터 피부로 느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생장으로 아버지를 고향에 보낸 한 2세<sup>20)</sup>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살고 있던 아버지는, 죽으면 화장하고 일본의 어딘가에 무덤을 만들어 뼈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생장을 부탁 받고 깜짝 놀랐다. 그래도 좋은 느낌이 들었다. 일본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뭔가를 주장한 적이 없는 아버지가 죽어 가는 것에 관해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뻐다. 이 일본에서 보통 살고 있는 일본인과는 다른 점을 자신의 죽음의 처리방식을 갖고 이야기한 기분이 들어 멋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평범한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어

20) 그는 40대 의사로, 종래 친목회에도 집의 제사에도 그다지 참석하지 않았다. 부친의 장례식이 끝난 후, 양친의 장례식을 마친 다른 2세들과 마찬가지로 친목회의 골프MT에 참가하고 있었다. 골프MT는 연 1회 있지만, 언제나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자영업과 같이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이 아니면 좀처럼 참가하기 어렵다. 의사인 그가 평일에도 불구하고 참가했던 것은 장례식에서 신세진 친목회 사람들에게 예를 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떻게 자기생각만 할 수 있을까”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와 가장 밀바닥 생활부터 현재를 쌓아올린 그에게는 어울리는 것이고, 그 정도는 해주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 혹은 존중이다. 2세는 화장과 무연고 고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구체적인 이유에 납득해서 생장 요구에 응한 것이 아니다. 또한 1세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것에 뿌리를 둔 원망(願望)을 2세·3세가 이해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양자 간의 문화적 거리는 명확한 것이며, 서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행동은 성립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으며 극복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를 존중하려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재일 2세·3세의 1세에 대한 감정은 원래 복잡한 것이다. 관용, 존중의 감정과 동시에 저항, 혐오의 기본도 공존하고 있다. 또는 그것에 거리를 두고 차가운 눈으로 보는 태도도 더해지고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그러한 양면적인 감정은 같은 사람 안에서 서로 상황에 따라서 한쪽의 극(極)에 크게 휘둘리거나 하는 것이다<sup>21)</sup>. 일상에서는 1세의 방식에 등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때에 따라 예를 들면 저항, 혐오의 대상이 사라지는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는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태도가 나타난다. 1세들의 생장 소원에 대해 2세, 3세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때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큰 차이가 세대 간에 있기 때문에 귀향하는 「죽음」이 실현된다는 것도 있는 것이다.

21) 김찬정(金贊汀)은 2세, 3세가 살아 있는 현실을 일본의 사회상황 하에서 설명하고 있다(金, 1997). 다음은 2세의 1세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시의 일부이다(尹, 1981). 「내게 있어 『조국』은, 물 속의 태양.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도망가 버리네. 우리들이 이렇게도 괴로워 발버둥치고 있다고 하는데도 당신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평상복의 조선을 몸에 걸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싫습니다.」

생장을 하는 2세, 3세의 관용은 그들 앞에 뜻밖의 선물이 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사자를 위해 큰일을 해냈다는 만족감과, 친척과 친목회 사람들로부터 받는 효자로서의 높은 평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고향 고내리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2세대들 중에서 자신도 사후에는 공동묘지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묘와 별초를 하기 위해 매년 고향을 방문하고 있다. 생장을 매개로 하여 관념적인 존재였던 고향이 실생활의 일부로 편입되게 됐다는 것이다. 사자의 귀향이 결과적으로 생자(生者)의 환경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태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안면의 장소로서의 「고내리」의 모색

그런데 묻히는 쪽인 정정숙씨는 왜 고향에 시신인 채 돌아가는 것에 대해 저렇게까지 집착했던 것일까. 생활의 장소로서 아라카와에 오는 것을 강하게 바라서 몇 번이나 「밀항」에 도전한 정정숙씨가 죽음에 즈음해서 생장을 원하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거기에는 화장이나 무연고 고인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닌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라카와의 「제2의 고내리」에 관한 기술을 떠올려 보자. 정정숙씨가 생장을 원하는 이유는 역시 제주도 출신 이주1세의 생활 상황에 있을 것이다. 정정숙씨뿐만 아니라 이주1세대들은 「일본」과 「도쿄」에서의 생활을 추구했다기보다 「아라카와에 있는 또 하나의 고내리」에서의 생활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으로의 이주가 시작된 이래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고내리 출신자가 고생해서 만들어낸 세계였다. 그래서 정정숙씨 같은 1세대들이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고내리보다 고내리 사람이 많은 아라카와는 생활환경 면에서도 사람과의 교제 면에서도 현실의 고향보다 살기 좋고 아늑한 곳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고 관계였던 것이다.

원래 고내리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마을사람들의 인간관계(다양한 재일동포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때야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나이를 먹어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일본은 결국 임시 장소에 불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 와서 억척스럽게 일해 온 고령자들 중에서 자신의 의지로 현역을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또한 밀항으로 와서 아직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이를 먹으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사정을 말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매듭지으려 함에 있어 자신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편안한 장소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정숙씨에게 있어 생장이 바로 그러하다. 아마 그녀에게 있어, 그리고 생장을 원했던 1세대에게 있어 사후(死後)의 거처를 고내리에 구하는 것은 아라카와의 고내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아늑한 환경을 사후에 있어서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었으리라. 친족공동묘지에서 친한 선조들과 함께 잠들며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에 의해 실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사후의 환경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라카와의 고내리에서 살고 제주도의 고내리에서 잠든다는 것이다. 정정숙씨의 경우 거기에는 남편을 비롯해 기억에 남아 있는 선조들이 잠들고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도 거기에 있다.

1세의 사후를 담당하는 입장의 2세대에게 내가 질문하면 자신은 무덤은 필요 없다. 뼈를 부수어 어딘가에 뿌려달라는 사람이 많았다.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1세 중에도 있었다. 숫자만을 문제로 삼는다면 토장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생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의 소원을 실행에 옮겨 주는 강력한 이해자가 필요하다. 정정숙씨의 예에서는 연식씨가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연식씨는 정정숙씨 이외에 숙부인 주생(周生)씨, 장인어른 내외로부터도 생장을 부탁받고 있었다. 그가 친아들도 아닌 연식씨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그가 생장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연식씨 자신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두 개의 고내리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식씨는 친족공동묘지의 건립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1996년에 고내리에 집을 짓고 있다. 2층의 호화스러운 3세대 주택이다. 그중 2세대 뒤편에 영환씨 부부와 그 장남의 가족이 살고 있고 1세대 뒤편은 연식씨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에 사용하고 있다. 장래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해 만들어둔 집이기도 하다. 이 집을 짓게 된 계기는 10년 전의 사업 실패였다. 연식씨가 경영하고 있던 가방회사는 순탄

하게 업적을 늘려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다. 주위에서도 크게 기대를 받았고, 민단 일과 고향과의 관계 만들기에도 열심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여 일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까지 떨어졌을 때, 일본은 앞으로 쪽 살아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연식씨는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고내리 출신의 동료들까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 결심했다. 성공하면 고향에 자신이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고, 일본은 몸이 건강할 때 일하는 곳이고 성공했을 때에는 아늑한 곳이지만 늙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해서 힘이 없을 때에는 어느 곳보다 괴로운 곳이라고 몸소 실감했던 것이다. 제주도의 고내리에는 연식씨와 비슷한 생각에서 현역에서 은퇴한 후 일본에서의 재산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귀향한 사람들은 장기 부채에 의해 마을 생활에 녹아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고향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마을 내의 인간관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던 연식씨는 그렇기 때문에 형을 위해서 집을 짓거나 친족공동묘지를 만들어 선조의 무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출선해서 해 왔던 것이다. 그는 마을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참가할 수 없어도 형을 통해 축의금을 전하고, 부조금을 내고 있다. 마을에 살고 있지 않지만 마을 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마을사람 네트워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연식씨의 이러한 노력에는 자신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 대한 배려도 작용하고 있다. 언젠가 자손 중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를 위해 일본 안에 무엇인가를 남겨려고 해도 언제나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재일동포에게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고향에 무덤을 남겨 두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연식씨는 말한다<sup>22)</sup>. 나아가 그는 이주자의 자손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누군가 친족이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에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생활고로 어딘가에 이동해 버리는 것이 없도록 성공한 이주자가 고향 사람들의 생활을 장래에 걸쳐 지켜줄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향 고내리가 이주1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22) 재일동포1세의 중에는 자신의 이주 궤적을 자손에게 전하는 의도도 담아서 여러 가지로 궁리해 무덤을 건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무덤에는 몇 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 시조로 불리는 사람부터 고인(故人)까지의 계통도와, 1세의 도일(渡日) 상황, 일본에서의 경력이라는 개인사 등을 기록한 묘비가 세워져 있다(李, 1996).



그 생장은 실제의 고향 고내리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이다. 거기에서는 각자 다른 「고내리」가 서로 충돌한다. 그 충격은 한편으로는 살기 불편함과 반일 감정을 낳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고내리」의 접점을 발견하는 작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계와 유대가 생기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매장한 것에 의해 공동묘지의 향후 관리, 운영에 관여하게 된 이주2세가 지금까지 교류가 거의 없었던 고향의 친척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지, 생장에 동행한 것을 계기로 자신도 사후에는 고향에 있는 친족공동묘지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 2세, 3세들이 앞에서도 언급한 고향과의 교류를 시작한다는지 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장을 매개로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고향을 실생활의 일부로 편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후 환경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자(死者)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하나 남기고 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 생장을 치른 2세, 3세들이 일본에서의 생활에 고향 고내리를 어떻게 편입시켜가는지, 연식씨처럼 현역 때부터 귀향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귀향하는지, 귀향한 경우에 2세, 3세와의 관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Ⅵ. 후기

이렇게 마친 연구 논문의 그 후를 이어가기 위해 박사논문 집필 후에도 고내리 친목회 회원들과의 교류를 이어갔다. 1월에 있는 친목회의 신년회, 각 집안의 신년회, 중요 연구협력자의 제사, 부인회 여행과 어버이날 모임, 2세 3세가 주축이 되어 만든 청년회의 바비큐파티, 골프, 1940년생의 태양회 모임등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참석하여 고내리 사람들을 사귀어 왔다.

먼저 이 논문에서 소개한 홍씨집안을 보면, 일선에서 집안을 이끌어 왔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정 할머니의 손자가 집안 어른신을 모시고 매년 벌초를 하고 있다. 당시 2살 1살 이었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올9월에도 부부와 차남이 벌초를 했다. 4세인 대학생 아들은 1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느끼고 가는 3박 4일이라고 한다.

친목회도 3세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 8월에 있는 바비큐파티에는 150여명의 회원 가족이 모여 동경도내의 도시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사논문 집필을 위해 집을 빌려 살면서 조사하던 시절에 비하면 여러 모로 적어진 규모지만 친목회결성90년 레일 100년의 역사는 후손인 3세 4세들에게 각인된 것을 느낄 수 있다. 민족교육이며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중시 여기는 발언은 많지만 이주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시각으로 들여다 보는 연구와 발언은 많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3세4세가 이끌어 가는 고내리친목회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고찰 하고자 한다.

자신이 절실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1세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생장을 돌보았던 연식씨는 2009년 돌아가셨다. 그의 묘는 아라가구 소재의 공영 묘지안에 여느 일본인과 다르지 않는 석조 묘로 설치 되었다.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말하기도 전에 그의 희망사항을 알던 가족은 고향에 묘지를 꾸미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냈고 유언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린 고향에 살던 형은(그 분도 3년전에 돌아가셨지만) 가족묘지 한 구석에 묘비를 세워 그를 기렸다. 그 묘비가 있는 것조차 부인과 네 이들은 모른다고 한다. 연식씨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다. 마을 친목회나 고향 방문등에 소극적이었던 자녀들은 장례가 끝나고 친목회 모임등에 오지 않았다. 또한 부인 역시 소속해 있던 마을 모임에 일체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제사도 가족만이 하겠다고 했지만 친척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까운 친척만을 받아 들여 제사를 지낸다. 참고로 네명의 아들들은 정할머니의 손자와 동년배이다.

이렇듯 이주자의 연구는 긴 시간을 들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 일과 친척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보다 힘썼던 연식씨가 그리도 바라던 고향땅에 묻히는 소망을 이루지 못할 줄은 20년 전 연구때는 예상을 못한 결과이다. 또한 한국에 그리도 관심이 없던 정할머니의 손자가 태어나지도 않은 고내리를 이토록 건실하게 자신의 뿌리라고 여기면서 조상의 묘를 매년 가꿀 줄은 상상을 못했다. 3세 4세들의 고향 사귀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역시 흥미롭다. 긴 시간 연구한 사람이 받는 선물처럼 느껴지는 이 호기심은 연구 생활의 활력이 되고도 남는다.

## 참고 문헌

- 金贊汀. 1997. 『在日コリアン百年史』. 東京: 三五館.
- 泉靖一. 1966. 『濟州島』. 東京大学出版会. : 49.
- 榎田一二. 1939. “濟州島の聚落の地理学的研究.” 『地理』2(1): 27-41.
- 李仁子. 2001. 『「移住者の「故郷」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在日濟州道出身者の移住過程と葬送儀礼からみる「安住」の希求-』』京都大学博士論文.



〈Abstract〉

## Cultural Anthropological Study on Jeju People's Immigration to Japan :

Focusing on the First Generation Immigration and Funeral Ceremony

Lee, In-Ja(Dohoku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story of Gonae-ri people of Jeju Island, who immigrated to Japan and has a history of hundred years there. Despite migration to Japan, which started in 1917, many Korean ethnic people returned to their homeland due to the liberation, which occurred in 1945. However, the rebellion on April 3, in 1948, made people to re-migrate to Japan.

From 1995 up to now, the presenter has been studying the life of the village by using cultural anthropological method, which seems to her that the village life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into the middle of Tokyo.

Among the results of the study, especially, about the life and death of the first generation and also regarding the identities of both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will be presented. 20 years ago, based on the case of the family who accepted the testament of an old woman, where she asked not to make the cremation and bury her in the homeland and was really escorted to the funeral ceremony thereafter, the researcher investigates the process of migrants' settlement, focusing on their family history and also identities of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Key words: Gonae-ri, Korean Ethnic People, Jeju Island, First Generation,

Funeral Ceremony, Identity, Migrants' Settlement

■ 논문접수일: 2018. 5. 16. 심사완료일: 2018. 6. 03. 게재확정일: 2018. 6. 12.

■ 필자소개 : 이인자 - 현재 일본 동북대학 교육연구과 준교수로 재직중임. 동북교육철학교육사학회 상임이사. 일본학술진흥회과학연구비심사위원. 저역서에「震災で失った子どもとともに」安井眞奈美編「グリーフケアの可能性-大切な人を失った悲しみを抱いて」(勉誠出版, 2017). “地域社会における新たな文化の受容と定着に関する一考察-異なる二つの地域の相撲部屋の受入れの事例をもとに-.”『東北大学教育学年報』 “이주하는 '생' 귀향하는 '죽음' -어느 재일 제주도 출신자의 귀향 장송의 사례-.”『교육인류학연구』등 다수 있음.

이메일 주소: LEE INJA <mail@leeinja.net>



к с і